

宋代 天童寺의 전각과 이용

- 『禪院清規』와 『五山十刹圖』의 문헌을 중심으로 -

서 아 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

홍 대 형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禪宗寺刹, 清規, 五山十刹圖, 規範, 儀禮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고대 중국 건축 계획은 예제와 현학의 영향 아래 있었다.¹⁾ 건축 규범서로 알려진 『周禮考工記』가禮와 관련된 『禮書』의 일부라는 것은 이러한 예이다. 「考工記」²⁾는 궁궐이나 종묘 등의 유교 건축물을 영건할 때 중요시되는 참고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의례는 생활을 유지하는 규범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배치나 내용 등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였다. 이것은 비단 유교 건축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불교 역시 종교가 지니는 특성상 의례를 중요시한다. 의례는 일종의 규범이며 이는 승려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 선종 사찰의 규범을 淸規라고 한다. 淸規는 百丈懷海禪師(720~814)의 『百丈淸規』를³⁾ 효시로 하고 있다. 淸規는 禪宗사찰에

서 행해지는 의례들의 뿌리가 되며 이것에서 파생되어 각 사찰마다의 고유한 규범이 생성된다. 현존하는 最古의 청규는 『禪院淸規』이며 현재까지도 승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禪院淸規』는 宋代에 편찬되었으며 이것은 당시의 선종 사찰에서의 생활과 의례의 내용을 담고 있다.

『禪院淸規』를⁴⁾ 연구 대상으로 한 이유는 첫째, 가장 오래된 淸規로 淸規의 시원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禪院淸規』가 간행된 후 송나라에 영건되었던 禪刹 자료인 『五山十刹圖』를 함께 비교 분석한다면 당시의 사찰 모습과 더불어 『禪院淸規』의 건축적인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禪院淸規』를 대상으로 하여 宋代 禪宗사찰의 생활 모습과 의례를 분석하여 당시 사찰의 전각과 그 이용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당시의 天童寺와 비교하여 『禪院淸規』건축적인 의미를 찾는데 2차 목적이 있다. 『周禮考工記』 등의 의례서의 역할이 궁궐 등의 유교 건축에 있어 건축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禪院淸規』라고 하는 불교 의례서는 사찰 건축의 건축서 역할로

1) 李允錫, 이상해 외 옮김, 2000, 중국 고전 건축의 원리, 시공사, pp.60-65 참조

2)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건축 기술과 관련된 중국 최초의 기록으로, 노예 사회 관부 수공업 생산 각 제도의 공정과 측량 규격을 기술한 책.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에서부터 일반 재료를 사용하는 경험에 이르기까지 간단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다. (얇 책, p.67 42) 考工記 참조)

3) 『百丈淸規』는 현존하지 않고 백장의 『禪門規式』이 남아 있어 내용을 추측할 뿐이다.

4) 중국에서 발간된 주요 淸規는 다음과 같다. 無量宗壽, 南宋 嘉定 2년(1209), 入衆日用淸規 작자미상, 南宋 景定 4년(1263), 入衆須知 惟勉, 南宋 淳10년(1274), 叢林校定淸規總要 택산일감, 元 至大 4년(1311), 禪林備用淸規 中峰明本, 元 延祐 4년(1317), 幻住庵淸規 東陽德輝, 元 至元 4년(1338), 勅修百丈淸規

서의 가능성을 지닌다.

연구 방법은 宋代 禪刹의 모습이 담겨있는 『五山十刹圖』 중 「天童山圖」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宋代 禪刹의 구성과 당시 각 전각의 모습을 찾아본다. 그리고 현존하는 『禪院清規』에 나타난 사찰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각과 그 이용 방법을 분석하여 두 문헌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의례와 건축 공간과의 연관성을 밝혀보고 『禪院清規』와 『五山十刹圖』의 건축 자료로서의 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1-2. 주요 자료에 대한 소개

宋代에 宗蹟 禪師는 百丈懷海禪師의 古清規의 사상을 복원하고자 당시의 자료를 수집하여 10권의 清規를 발간하는데 이것이 『禪院清規』⁵⁾(1103)이다. 『禪院清規』는 현존 最古의 清規로 이후 중국·한국·일본에 발간된 여러 清規에 영향을 주게 된다.⁶⁾

『禪院清規』는 여러 이본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고려판본』⁷⁾이다. 이것은 송정화원년(1111)의 重添本을 송 보우2년, 즉 고려 고종 41년(1254)에 증첨 한 것으로서 일본의 서사본과 판행본이 의지했던 것보다도 훨씬 오래된 텍스트에 의거하고 있는 점에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⁸⁾

한국 불교에 중국 청규가 전래된 것을 두 번이라고 보는데⁹⁾ 그 중 첫 번째가 『禪院清規』¹⁰⁾의 전

래이고 다른 하나는 태고 보우 때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규가 『勅修百丈清規』이다. 공민왕 때 간행된 『玄陵勅刊百丈清規跋』¹¹⁾에 의해 추정이 가능하지만 그 내용은 현존하고 있지 않다.

清規가 만들어진 宋代에는 禪宗을 국가 종교화하고 오산 십찰 제도를¹²⁾ 제정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지어진 사찰은 일종의 유형을 형성하며 훗날 일본 사찰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일본 스님인 徹通義介가 入宋하여 五山禪刹을 시찰한 뒤 永平寺의 가람을 일신하면서 그려진 자료가 현존하여 宋代의 모습을 짐작하게 해주는데 이것이 『五山十刹圖』¹³⁾이다.

『五山十刹圖』의 구성은 크게 상·하 권의 두

1382)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혹은 태고보우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송현주, 1999, 현대 한국불교 의례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p.61

10) 현존하는 『고려판 禪院清規』以前本이 이미 고려시대 사찰에 영향을 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지눌 선사가 편찬한 ‘계초심학인문’과의 유사성에서도 알 수 있다.

‘계초심학인문’과 『禪院清規』와의 유사성은 송현주, 1999, 현대 불교 의례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p.60 <도표 5> 참고.

그 외 두 문헌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다음 문헌들을 참고할 것. (송현주, 앞 책, p.56 n.127 재인용)

오형근, 1984, ‘한국 선원의 清規와 양식’, 한국선사상연구, 동국대학교 출판사

최창식, 1992, ‘보조 정혜결사와 수선사 清規’, 보조사상 5,6호, 불일출판사

, 1974, 고려시대의 禪宗清規에 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허정수, 1996, 勅修百丈清規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1) 태고집, 1940, 보제사, p.52

12) 宋代의 5산10찰 제도는 국가주의적 불교로 제도화된 것으로 최고의 사찰을 5산이라 정하고 그 아래 10찰을 두었다. 그리고 제산이라 하여 그보다 아래의 사찰을 칭하고 있다. 이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헌을 참고할 것.

정성본, 2000, 선의 사상과 역사, 불교시대사, pp.450-454

13) 『五山十刹圖』의 정확한 제작 년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1259년에 철통의개가 송나라로 건너갔다는 한보광의 책을 통해서 시기로 추측할 수 있다. 橫山秀哉는 天童寺가 1256년에 소실된 것으로 보아 제작 년도가 1256년 이전, 즉 1247-1256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五山十刹圖』의 제작 연도에 관한 것은 아래 자료들을 참고할 것.

한보광, 2001, 일본선의 역사, 여래장, p.114

田邊 泰, 1936, ‘禪宗의 寺院建築’, 佛敎 考古學 講座 제1권, 응산각, pp.11-12

橫山秀哉, 1973, 禪院文化의 鑑賞, 山喜房佛書林 p.40

5) 자각 종색, 최법해 역주, 2002, 『고려판 禪院清規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지관, 『발간록』 pp.5-6 참고

6) 한국과 일본에서 발간된 주요 청규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발간된 청규는 주4) 참조.

知訥, 1205, 誠初心學人文眞一, 1659, 釋門家禮抄
道元, 1237~1249, 永平清規
瑩山, 1324, 瑩山清規
清拙正澄, 1332, 大監廣清規
天倫楓隱, 1566, 諸回向清規

7) 고려판과 증첨본에 대한 목록 비교는 앞 책, p.34를 참고할 것. 고려판은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Yifa, 2002, 『The Origins of Buddhist Monastic Codes in China』, Univ. of Hawai'i Press의 清規에서는 7권까지만 소개하고 있다. 이는 고려판과 중국판을 비교해도 8권부터는 내용상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은 7권까지 내용으로 한다.

8) 자각 종색, 앞 책, 小坂機融, ‘고려판 禪院清規의 특징’, p.31

9) ‘첫 번째 청규 전래는 보조 지눌(1158~1210) 당대에 이루어졌으리라 보이며, 두 번째 청규의 전래는 태고보우(1301~

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분해 보면 크게 배치도, 입면도, 가구도, 좌석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들은 사찰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의례를 설명하는 도식적인 역할을 한다.

2. 太白山 天童 景德寺의 配置

『五山十刹圖』¹⁴⁾에 실린 배치도 형식의 사찰 그림에는 「天童山圖(太白山 天童 景德寺)」, 「靈隱寺圖(北山 景德 靈隱寺)」, 「天台萬年山圖」가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오산 사찰 중 하나인 「天童山圖」를 분석하여 당시의 사찰 가람의 구성 형식의 예로 사용하고자 한다.¹⁵⁾

『五山十刹圖』에는 天童寺¹⁶⁾와 관련된 세 장의 그림이 실려 있다. 「天童寺圖」, 「天童 闍賓」, 「天童山 賣明室圖」가 그것이다. 배치도라고 할 수 있는 「天童寺圖」를 분석해 보면 중국 사원의 전형적인 배치¹⁷⁾와 유사한 구성을 보인다.

14) 五山十刹圖를 분석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음.
張十慶, 2000, 五山十刹圖與南宋江南禪寺, 東南大學, 2002, 中國江南禪寺寺院建築, 湖北教育出版社
屠舜耕, 1998, 淺釋禪宗寺院建築的總體佈局, 佛教建築設計與發展國際研討會議錄暨 論文集, 43-61頁,
黃敏枝, 1987, 宋代政府對於寺院的官理政策, 東方宗教研究 第一期, 109-141頁

15) 각 사찰은 각각 특색을 지니고 있지만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天童寺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겠다.

16) 天童寺는 당 개원20년(732)에 개산하였으며, 중국 오대 선찰 중 제 2 라 칭한다 있다. 사역 내에는 커다란 연못이 천왕문 앞에 있으며, 佛殿, 法堂, 나한전이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주지의 거처인 方丈은 홍상도사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고 佛殿에는 석가, 미타, 약사의 삼불이 안치되며 석가 좌우에는 가섭, 아난이 있고 삼존 전방에 범왕제석이 서고 좌우 18나한이 배치되고 정면 7칸, 측면 6칸의 중층의 팔각 건물이다. 장경각에는 동장(經)외에 미타 삼존이 봉안되고 식당을 심공실이라 칭하고 있다. 조사당에는 달마를 중심으로 좌측 마조, 우측 백장의 상이 있고 나한전에는 18나한상 석각이 안치되어 있으며, 천왕문 밖에는 높이 7미터의 칠층탑이 있다. 현재는 나한전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것은 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1918년에 중건되었다. (道原, 김경수 역, 1988, 경덕전등록1·2, 불교통신대학 p.40 참고로 하여 정리함)

17) 중국 사원의 시작은 후한 명제 때 낙양에 白馬寺를 건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초기의 사원은 주로 일반 주택을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나 禪宗의 흥기와 더불어 칠당가람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형식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송 대 이후 불사는 칠당가람으로 조성된다. 종파에 따라 다르지만 山門, 佛殿, 講堂, 方丈, 食堂, 浴室, 東司 등의 건물이 갖춰진다. 근대로 내려올수록 佛殿이 중심이 되어 배치되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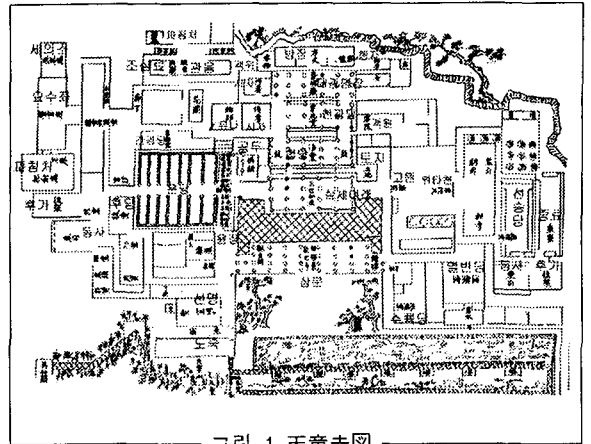


그림 1 天童寺圖

(無著道忠, 1984, 척수백장정규좌후, 中文出版社, 부록: 大宋五山圖說, p.1286을 재작성)

2-1. 三門

삼문은 7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좌우에 종루와 관음각이 위치하고 있다.

2-2. 佛殿(三世如來)

남쪽으로부터 三門을 지나면 三世如來에 이른다. 三世如來는 佛殿으로 석가·아미타·약사의 여래상을 봉안한데서 기인한 명칭¹⁸⁾으로 현재에도 삼세 여래상이 봉안되어 있다. 불전은 5x3칸 건물로 庫院·僧堂과 동서로 면하고 있다.

2-3. 法堂

불전의 북쪽으로 法堂이 놓인다. 法堂은 그림 상 크기는 불전에 비해 작지만 5x3칸으로 동일한 칸수를 가지고 있다. 즉 범당과 불당의 규모는 동일

형화되어 禪宗의 경우 章法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고대의 사찰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형적인 전당 배치는 중국의 「영조법식」에 따라 중요한 건물은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하고 부수적인 건물은 동서 양측에 배치한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주요건물들인 山門, 天王殿, 大雄寶殿, 法堂이 놓이며, 때에 따라서 장경각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들 전각은 모두 남향을 한다. 동·서 양쪽에 있는 배전으로는 伽藍殿, 祖師堂, 觀音殿, 藥師殿 등이 있다. 사원의 주요 생활구역은 중심축선의 좌측에 놓이는데, 僧房, 香積廚(주방), 齋堂(식당), 職事堂(창고), 茶堂(점전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여관구는 일반적으로 중심축의 우측에 놓이며 雲會堂(禪堂), 방문객이 머무르는 곳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바이화원(白化文), 배진달 옮김, 2001, '1. 불사의 배치 형식', 중국사원 문화기행, 예경, pp. 52-56)

18) 같은 예로 「萬年寺圖」는 羅漢殿이 있다. 다른 扁額名으로는 大雄玉殿, 釋迦玉殿 등이 있다. 「靈隱寺圖」는 佛殿이라고 명칭하고 있다.

하다고 볼 수 있다. 법당 내부에는 북(鼓)의 위치가 표시되어있으며 불전과 법당 사이 좌우로는 토지와 공동구가 놓인다. 이는 각 지위의 衆寮를 말한다.

2-4. 方丈

天童寺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건물은 方丈이다. 方丈은 內方丈과 前方丈으로 나뉘는데 이곳은 前方丈으로 당시의 주지스님이 머무르시던 곳이다. 그 남쪽에는 大光明藏¹⁹⁾과 穿光堂이 있는데 둘 다 前方丈이다. 穿光堂은 衆寮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선림상기전』에 보면 穿堂을 衆寮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五山十刹圖』에 나온 건물의 명칭에 따른 분류와 『한국 불교 대사전』에 따라 前方丈으로 해석했다.

大光明藏과 穿光堂은 모두 5x2칸의 규모이며 內方丈인 방장의 규모는 정확히 추측할 수 없다.²⁰⁾

2-5. 僧堂(雲堂)

동서 축을 보면 생활공간이 동서 양측으로 분리되어있어 칠당가람²¹⁾ 배치와 유사한 모습도 보인다.

19) 대광명장:

1. 광명장과 같음, 대지혜. 또는 자기의 본심, 자기의 본심은 무명을 깨고, 진여의 빛을 발하는 대지혜 광명을 수장하는 것이므로 광명장, 대광명장이라함.
 2. 중국 천둥산의 方丈을 일컫음.
- 한국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 1993, 한국 불교 대사전 v.2, 명문당

20) 「天童寺圖」에는 접근이 가능한 공간들은 칸수를 표현하는 등 상세히 묘사되어 있지만 반면에 사적인 공간인 內方丈이나 寮 등은 간략하게 표현되고 있다. 「靈隱寺圖」에도 배치도 자체는 간략하게 표현되고 있으나 주요 전각 중 일부의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21) 「五山十刹圖」는 초기 禪宗 寺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기 禪宗 사찰은 明代에 이르면서 소위 말하는 七堂伽藍 배치로 정형화 된다. 오산 십찰 제도는 甲刹(일본의 諸山제도) 보다 상위 단계로 이 방식 또한 일본에서 모방되었고, 가마쿠라의 오산제도로 정착되었다.

鏡島元陸, 「百丈古清規變化過程の一考察」, 佛敎學部研究紀要, 25号, 駒澤大學, p.2
 (신공, 2003, 「당대禪宗사원에 대한 고찰-「禪門規式」을 중심으로」, 한국 선 학회 추계학술발표, 앞 책, p.12 개인용)
 이후 나타난 禪宗건축 양식을 禪宗樣이라고 하는데 이는 總門, 三門, 佛殿, 法堂이 중심축 상에 늘어서, 이것을 회랑이 에워싸는 대칭형의 가람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法堂은 부처의 대법을 설법하는 건물이다. 그 뒤쪽에는 住持의 주거이자 의식에도 사용하는 方丈이 있다. 회랑의 외측에는 僧堂, 東司, 浴室 등이 배치되어 있다.
 (西和夫 외, 이무희 · 진경돈 공역, 1995, 일본건축사, 세진사, p.30 禪宗과 禪宗 건축 참고)

다.

佛殿의 서쪽에 僧堂이 위치하는데 이는 사찰 그림에서는 雲堂으로 적혀있다. 승당은 7x7칸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上堂 부분을 표시하는 것으로 동쪽으로 下堂이 따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각 지위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²²⁾

2-6. 庫院

庫院은 佛殿을 중심으로 僧堂과 대칭된다. 이 전각은 주방과 창고의 역할을 한 곳이다. 庫院 옆에 적혀있는 韋陀天²³⁾은 보살의 이름으로 당시 사찰 주방에 불상을 배치하던 관습으로 庫院에 봉안된 보살의 명칭을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韋陀天은 원래 천왕전에 봉안된다고 하는데 天童寺에서는 庫院에 봉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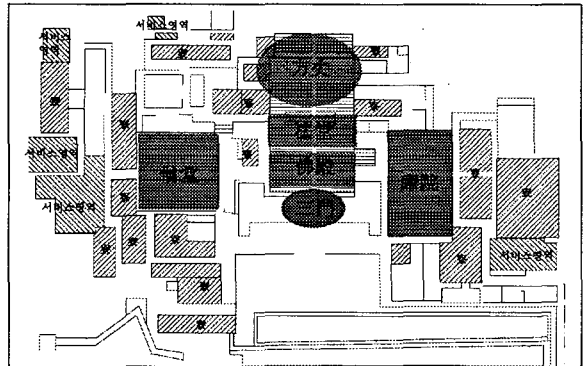


그림 2 天童寺의 주요 공간

(無著道忠, 1984, 칩수백장청규좌후, 中文出版社, 부록: 大宋五山圖說, p.1286를 바탕으로 재작성)

2-7. 기타 전각

韋陀天의 서쪽에는 세 개의 요가 함께 구성되어 있다. 監司(寮), 副司(寮), 都司(寮)로 구성된 군이 그것이다. 이들 직책은 『禪院清規』의 4지사 중에서 監院이 남송시대에 분화된 것이다. 이때 나뉘진 직책들은 원래 하나의 직위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볼 때 하나의 寮로 묶어 질 수 있다.

그 외에 涅槃堂은 延壽堂²⁴⁾을 말하는 것이고, 禪

- 22) 내부 공간의 상세한 모습은 僧堂圖를 통해 알 수 있다.
- 23) 韋陀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바이화원, 앞 책, pp.69-71 '5. 韋陀天'을 참고할 것
- 24) 叢林 安居의 病僧을 수용하는 堂宇의 하나. 원래 無常堂, 涅槃堂이라 칭하였으나, 병자의 情에 따라 延壽라 부르게 되었

僧堂은 행자들이 머무르는 당액을 말한다. 그 외에 浴院은 욕실로 申明이라는 당액으로 가진다.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남북 축을 중심으로 중요한 전각이 놓이며 그 주위에 각 寮가 위치한다. 그리고 바깥에 그 공간을 지원하는 화장실, 세면소, 바느질의 장소 등이 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욕실도 전체 공간에 가장 바깥에 위치하게 된다. 6지사의 寮는 감원에서 파생된 都寺, 監寺, 副寺의 경우는 서로 인접하여 동쪽에 위치하고, 유나는 서쪽에 위치한다. 또, 「天童寺圖」에는 직세와 전좌의 寮는 보이지 않는데 후자의 경우 庫院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칠당가람에 따르면 동사나 욕실의 경우도 중요 공간에서 대칭을 형성하는데 「天童寺圖」에는 기능에 따라 배치되었을 뿐 규칙성은 찾을 수 없다.

「天童寺圖」에 나타난 宋代의 禪刹의 모습을 정리하면 중앙에 주요한 전각인 三門, 佛殿, 法堂, 方丈이 일직선상에 놓이고 佛展²⁵⁾을 중심으로 雲堂과 庫院이 대칭하여 놓인다.²⁶⁾ 마찬가지로 주로 지사나 두수의 寮가 일직선을 중심으로 하여 대칭을 이루어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寮群에는 東司가 놓이고 인접하여 後架가 위치한다.

3. 天童寺의 殿閣과 利用

「禪院清規」에 나타난 의례를 분석하여 그것이 행해지고 있는 전각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된 내용은 宋代 禪刹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五山十刹圖」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분석하겠다.

3-1. 三門

三門의 의미는 「大智度論」에서는 ‘空, 無相, 無作’을 상징한다고 하며, 열반에 이르는 門²⁷⁾이라고

다.

25) 선종 사찰에서는 佛殿의 의미는 약하였으나 宋代에는 佛殿이 존재했다.

26) 남송 선종 사찰의 형식은 張十慶의 책에서 분석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7) “일반적으로 空·無相·無作의 세 가지 해탈문(불지론의 설)에서 유래한 것으로써 사원을 涅槃의 경지에 비유하여 사원으로 통하는 三個의 문을 가리킨다고 한다. 인도·중국에서는 옛날에는 정면·동·서의 삼방의 문이었으나 남송시대 禪宗의 사람 양식을 전하는 「五山十刹圖」에 보면 외산문·중문·정문의 삼문이 일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禪院清規」에서도 제일문·제이문·제삼문의 삼문으로 되어있으므로 북송 시대

도 하고, ‘空, 無相, 無願’을 상징한다고도 한다.²⁸⁾ 중요한 것은 개수보다 경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속계와 성스러운 공간을 가르는 역할²⁹⁾을 한다. 「五山十刹圖」에서도 門이라고 지칭하거나 편액을 써 놓았다. 그리고 단계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문에 세 개의 출구가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사찰에 들어 올 때나 나갈 때 三門 밖에서 샷갓을 벗고 쓴다.³⁰⁾

관리를 맞이할 때 지사는 산문의 바깥자리에 수좌 이하는 三門 안에 자리한다.³¹⁾

외부에 나갈 때에는 종을 울려 三門 아래 가지런히 모인다.³²⁾

사찰에 들어가면 三門 아래에서 분향한다.³³⁾

「禪院清規」에 나타난 三門을 분석해보면 모든 의례는 三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는 사찰의 시작이 三門이며 이곳을 통해 경건한 장소로 진입하는 의미를 지닌다.

「五山十刹圖」에는 「天童山山門扇」이 실려 있어 門의 형태를 알 수 있으며 外山門額·中門額·正門額으로 이루어 당시에 세 개의 문을 유지하고

에도 이미 그와 같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 같다. 후세의 삼문은 다른 삼문은 생략되어 正(山)門이 대표로 되어있다.” (자각 종색, 앞 책, p.81)

28) Yifa, 2002, 『The Origins of Buddhist Monastic codes in China』, univ of Hawai'i Press p.253, 61 참고

29) ‘사찰의 산문은 단순한 통행의 기능을 넘어서는 것으로, 문 이전과 문 이후의 공간에 상징적인 차이를 두고 이를 문으로 구별하므로, 문의 통과행위는 곧 단계의 상승과 경지의 전이를 의미한다.’ (양상현, 1999, 조선 시대 사찰배치의 서사구조, 서울대 박사논문 p.103)

30) 於三門外簷上下笠. 入寺之法,於三門外簷下下笠. 자각 종색, 앞 책, <裝包> p.77

31) 接官之法,監司·守令方動衆迎接.知事在三門外,首座已下在三門內. 자각 종색, 앞 책, <迎接> p.145

32) 時至鳴鐘三門下齊集. 자각 종색, 앞 책, <出入> p.255

33) 入院於三門下燒香. 자각 종색, 앞 책, <尊宿入院> p.291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2. 大殿(佛殿)

『禪院清規』에는 佛殿이라는 명칭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大殿을 佛殿으로 해석하기로 한다.³⁴⁾

法語하고 僧堂 앞에 나아가서는 짐(포)을 풀며, 後架에서 발을 씻는다. 堂에 들어가면 聖僧을 뵈고 향을 피우고, 參隨와 함께 大展三拜³⁵⁾하고 掛塔을 마친다. 새로운 住持는 먼저 大殿 그리고 土地堂³⁶⁾ 그 다음 眞堂을 거치면서 모두 의례에 따라 燒香한다.³⁷⁾

『禪院清規』에 언급된 尊宿入院³⁸⁾을 보면 새로 임명된 주지는 사찰에 도착한 후 大殿·土地堂·眞堂의 순서로 분향한다.

새로 부임한 住持가 門에 도착하면 향을 피우고 法語를 한다. 다음으로 佛殿에 이르러 향을 피

우고 法語를 하고 大殿三拜를 한다. 僧堂의 鐘이 울리면 대중이 먼저 鉢位로 돌아가 자리를 청하고 선다. (중략) 다음에 住持는 土地堂과 祖堂에 가서 향을 피우고 각각 法語를 한다.³⁹⁾

元代에 발간된 『勅修百丈清規』⁴⁰⁾에 실린 入院(住持章第五)에는 신참 주지가 山門에 도착한 뒤에 佛殿에 참배하고 僧堂과 土地堂 그리고 祖堂을 참배한 의식과 方丈으로 입실하는 법식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보면 佛殿에서 분향하고 법어 후 분향 삼배한 후에 土地堂과 祖堂⁴¹⁾에서 향을 피운다고 되어있다.

『禪院清規』과 비교해 보면 元代에 간행된 『勅修百丈清規』에 실린 入院의 내용이 더욱 상세하지만 의례 순서와 내용은 동일하다. 즉 宋代에 大殿-土地堂-眞堂⁴²⁾에 이르는 의례 순서는 元代에 와서 佛殿-土地堂-祖堂으로 이어지며 이것을 비교해 볼 때 大殿은 佛殿으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다.⁴³⁾

물론 『勅修百丈清規』가 만들어진 元代의 의례

34) 鏡島元陸의, 昭和 54年3月, 『譯註 禪院清規』, 曹溪宗宗務廳, pp.11-25 재인용 에 따르면 大殿은 大藏殿을 지칭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의례에 따른 해석으로는 佛殿으로 해석된다.

35) 三拜는 三業(身業·口業·意業)의 歸敬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세 번 禮拜하는 것을 말한다. 삼배에는 대전 삼배·축례 삼배·양전 삼배 등의 구분이 있는데 대전 삼배는 좌구(방석)를 접지 않고 길게 퍼서 특별한 경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자각 종색, 앞 책, p.91 참조)

36) 토지신과 護伽藍神을 모신 사당. 『남선규식』에 「宋國土地 祖師二堂 在法堂左右」라 하고 있으므로 원래 土地堂은 진당과 마주하여 법당 또는 불전의 좌우에 나란히 건립된 독립의 당우이었으나, 후세에 가람이 축소되어 불전 내 우측의 脇壇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土地堂에는 불법의 옹호, 가람 호지의 제신으로서 심판선신·법천·제석천·대각수리·호법명왕 등이 안치되어 있다. (자각 종색, 앞 책, p.130)
선원의 경내를 수호하는 토지신을 봉축하는 당우이며 조사당과 함께 옛날에는 불전의 좌우에 설치되었으나, 『선림상기전』에 보면 『남선규식』의 기술이라 하면서 「송국의 토지 조사의 이당은 법당의 좌우에 자리 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법당의 좌우에 설치되었다는 설을 싣고 있다. (자각 종색, 앞 책, p.292)

37) 堂有法語.就僧堂前解包了,後架洗脚.入堂參聖僧燒香,同參隨大展三拜同巡堂.維那請就位觸札三拜掛塔訖,新主持人.先到大殿,次,土地堂,次,眞堂,並聲法事燒香.
자각 종색, 앞 책, <尊宿入院>, p.291

38) 尊宿入院에 대한 내용은 자각 종색, 앞 책, pp.291-293을 참고할 것.

39) 허정수, 앞 책, pp.65-66 참조

新命住持到門柱香學法語至佛殿柱香學法語大展三拜鳴僧堂鐘大眾先歸鉢位立定(中略)次至土地堂祖堂柱香各有法語
禪宗저술부, 1981, <入院>, 勅修百丈清規(8권), 속장경Ⅲ, 보현각, pp.505-506

40) 원의 원종 3년(1335년) 혜계 순종의 명을 받아 당시 백장산의 주지였던 덕회가 작성한 것으로 지원4년(1338년)에 완성하였다. 당시에 유통되던 모든 청규의 장단점을 모은 것으로 모든 사찰이 이 청규에 의해 승가 규범을 세우고 승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勅修百丈清規』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할 것. (허정수, 1996, 직수 백장 청규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41) 眞堂과 같은 전각이다.

42) 眞은 조사 영상을 말하며, 즉 이것을 모시는 당우. 토지당과 함께 佛殿의 좌우에 설치되었다. 조사당

43) 念誦의 경우엔 『禪院清規』에서와 마찬가지로 『勅修百丈清規』에서도 大殿이란 명칭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각의 명칭이 변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혼용의 결과로 보았다.
至時堂中·大殿·土地堂打疊洒掃安排香火,鳴鐘集衆
자각 종색, 앞 책, <念誦> p.127
住持到祖堂土地堂大殿燒香禮拜
禪宗저술부, 1981, <念誦> 勅修百丈清規(8권), 속장경Ⅲ, 보현각, p.496 참고

* 念誦: 매월 3일, 13일, 23일, 8일, 18일, 28일에 僧堂에서 十佛名을 명하면서 祈念하는 행례이다. 점심 후에 동사의 행자는 方丈에게 알리고 공고를 걸어 행사를 알린다. 方丈은 土地堂, 大殿, 僧堂 순서로 분향한다.
念誦에 대한 부분은 자각 종색, 앞 책, pp.127-130 참고할 것.

는 宋代와는 다른 체계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의례는 역대 淸規에 빠짐없이 등장 하는 의례⁴⁴⁾로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鏡島元陸은 大殿을 大藏殿으로도 해석하고 있으나 의례를 분석한 결과 Yifa의 해석대로⁴⁵⁾ 佛殿으로 분석해야 한다.

『禪院淸規』에 실린 大殿의 내용은 두 번밖에 없다. 이것은 大殿 공간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이며 佛殿을 강조하지 않으려는 慈覺宗蹟禪師의 의지로 해석된다.

3-3. 法堂

『禪院淸規』에 언급된 것을 보면 法堂은 주지의 법문을 듣는 上堂, 小參시, 經을 읽거나 주지가 입적했을 경우⁴⁶⁾ 등에 이용된다.

첫 번째 북소리를 들으면 수좌와 대중은 法堂으로 오르되 雁行⁴⁷⁾하고 옆으로 선다.⁴⁸⁾

五日마다 상당하여 주지의 설법을 들었는데 이때 사용되었던 장소가 法堂이었다.

먼저 시주 받은 물건을 法堂 안에 펼친다.⁴⁹⁾

시주를 위해 떠나는 날에 주지는 法堂으로 내려와 화주를 격려하고 문까지 배웅 한다. 돌아오면 시주받은 물품을 法堂 위에 펼친다. 당사는 대중에게 알리되 法堂 중간에 의자를 두고 그 옆에 서서 향을 피운다. 즉, 대중에게 시주 상황을 보고하는 장소로 法堂을 사용하였다.

또한 法堂은 경을 읽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시주하는 사람이 대중을 위해 경을 읽는 경우에는 藏下나 法堂에서 경을 읽으며, 直歲는 책걸상을 준비한다. 전좌는 도움을 위해 행자를 보내고, 장주는 차, 향, 꽃, 램프, 초를 준비한다.⁵⁰⁾

方丈이 입적했을 때 法堂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당연히 법어를 할 것이고 法堂 위 서간에는 龕을 두며, 동간에는 와상, 의가, 수신 수용의 기구를 설치하며, 법좌 위에는 진영을 건다.⁵¹⁾

法堂 위에는 소막, 흰꽃, 초, 봉헌물을 진영 앞에 퍼서 의례를 행한다.⁵²⁾

『天童寺圖』에 그려진 法堂과 佛殿의 칸수는 둘 다 5x3칸이다. 그림 상으로는 佛殿이 法堂보다 크게 그려지고 있지만 두 전각을 동일한 규모로 볼 수 있다.⁵³⁾

佛殿은 『禪院淸規』에는 언급되지 않는 전각이지만 『五山十刹圖』에서는 사찰 공간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림이 그려진 宋代에는 각종 의례가 佛殿보다 法堂에서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法堂의 위계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상황과 문헌 등을 살펴본 결과 法堂의 위계는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신공의 논문에서 더 명확해 진다.

백장회해의 淸規정신이 담겨있는 『禪門規式』

50) 如遇施主請衆看大藏經,或藏下,或法堂上,直歲按排椅棹,典座撥供過行者,藏主準備茶湯·香火·燈燭, 자각 종색, 앞 책, <看藏經>, p.248

* 看藏經: 장전 내의 看經堂에서 대장경을 읽는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시주의 청에 의하여 대중이 간경을 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看經堂이나 法堂에서 경을 읽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1) 當有法語 法堂上西間置龕,東間鋪設臥床·衣架·隨身受用之具,法座上掛眞 자각 종색, 앞 책, <尊宿遙化> p.295

52) 法堂上用素幕·白花·燈燭·供養之物眞前鋪道場法事 자각 종색, 앞 책, <尊宿遙化> p.295

53) 다른 배치도인 『靈隱寺圖』나 『萬年寺圖』에서는 칸수를 알 수 없고 크기 상으로는 法堂의 규모가 불당보다 작게 그려져 있다. 하지만 古建築에서는 칸수가 중요하므로 이에 따른다.

44) 住持章이하의 第五章(住持日用, 請新任持, 入院, 退院 등을 말함)은 백장대사의 淸規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선림을 독립시킨 근본이 된 것이며 역대 淸規에서 빠짐없이 다루어온 항목들이다. (허정수, 앞 책, '3. 勅修百丈淸規의 내용' 중 p.47 참고)

45) Yifa, 앞 책, n.24 pp.269-270

46) 尊宿遙化

47) 雁行(wild geese formation)은 기러기가 이동하듯 뒷사람을 앞지르지 않고 열을 지어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48) 聞一通鼓首座·大眾上法堂內,次第雁行側立. 자각 종색, 앞 책, <上堂>, p.123

49) 先,將施利陳法堂上 자각 종색, 앞 책, <化主>, p.214

에서 佛殿을 세우지 않고 法堂을 세우라고 선언했던 것은 당시 사원의 모습이 황실과 국가에 대한 의례중심에서 수행중심으로 바꾸고자했던 것이다.⁵⁴⁾

백장 회해가 강조했던 것은 佛殿의 유무보다는 자기수행을 중시하는 수행공간에 있었다. 이것은 결국 佛殿의 유무 보다는 그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宋代 禪刹에서는 佛殿이 존재하지만 法堂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五山十刹圖』에 실린 法堂의 扁額名으로는 長廣舌, 大覺堂, 無畏堂, 善解, 善法堂⁵⁵⁾, 無說堂 등이 있다.

3-4. 方丈⁵⁶⁾

方丈은 주지(方丈)가 기거하는 실을 말하며 堂頭⁵⁷⁾와 구별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方丈에는 內方丈과 前方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사적인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후자는 공적 의례를 행할 때 사용한다. 현재는 內方丈을 寢堂이라고도 한다.⁵⁸⁾ 『禪院清規』에서는 『五山十刹圖』의 구분처럼 內方丈과 前方丈의 구분은 없다.

백장 회해의 사상이 전해지는 「禪門規式」에서는 모든 승려가 僧堂에서 머무르도록 했다. 하지만 주지는 사적인 공간인 內方丈에서 생활하였다. 이는 선사의 가르침과는 상반되지만 禪宗에서 강조했

었던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나 조사당 등을 통해 주지에 대한 예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獨寮⁵⁹⁾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주지가 앉으면 시자는 方丈 밖 동변에서 叉手⁶⁰⁾하며 선다.⁶¹⁾

본인의 일년 직을 마치면, 야간에 方丈에 들어 사임을 알리고, 觸禮 三拜⁶²⁾하고 나간다.⁶³⁾

일년 직을 마치면 주지(方丈)에 퇴임을 알린다. 식전에 方丈에 들어 咨聞하고 차례 삼배 후 물러난다.⁶⁴⁾

식사 후 시자는 方丈에 가서 향꽃이와 좌석을 준비한다. ⁶⁵⁾

식사 후 方丈으로 나아가 點茶하되 당두 화상을 특위⁶⁶⁾하고자 청한다.⁶⁷⁾

54) 신공, 앞 책, p.15

55) 이중 善法堂은 松廣寺와 관련하여 『普照國師碑銘』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정황상 고려시대에 송광사의 善法堂은 法堂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보조국사이래 說法과 함께 嗣法의 초서로서 계속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서치상, 1983, 순천 송광사의 복원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p.27

...令擊鼓集衆策六環錫杖步至善法堂祝香昇座如堂儀...

서치상, 앞 책, p.26

(이능화, 1979, '보조국사비명', 조선불교통사下, 한국학연구소, p.340 개인용)

56) 주지가 기거하는 私寢의 당과, 공적인 相見·請益·小參을 행하는 正寢의 당으로 나뉜다.

사방 각 一丈의 거실이라는 뜻이며 주지인의 거처를 말한다. 또는 전하여 주지인 자신을 말한다.

57) 하지만 Yifa의 책에서는 당두를 abbot's office라고 하고 방장은 abbot's quarters라고 구분하고 있다.

58) 伊吹 敦, 2001, 禪の歴史, 法藏館, p.327, 참고

59) 單寮라고도 한다. 퇴임한 구직들이 기거하는 독립의 寮이다. 衆寮에는 寮首가 직무를 지휘하도록 하며 각 수도승은 각기 衆寮에 배치되어 정진하였다.

자각 종색, 앞 책, pp.92-94 참조

60) 손을 어긋 매겨 마주잡음.

동아새국어 사전

61) 住持人坐,侍者方丈外東邊叉手立.

자각 종색, 앞 책, <入室> p.120

*入室: 승려가 한사람씩 方丈에 들어가 각자의 소견을 말하고 질의를 묻고 답을 얻는 일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方丈에 출입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62) 차례 삼배는 좌구를 퍼지 않고 略拜(간단하게 절하는 것)하는 것을 말한다.

자각 종색, 앞 책, p.91 참조

63) 執事一年外,夜間入方丈告退, 觸札三拜而出.

자각 종색, 앞 책, <下知事> p.169

*下知事: 지사의 직이 만기되었을 때 교대하는 일

64) 應係堂頭所請諸頭首,一年外先方便求退,然後於粥前詣方丈.

자각 종색, 앞 책, <下頭首> p.220

65) 齊罷侍者先上方丈照管香爐位次.

자각 종색, 앞 책, <堂頭煎點> p.222

* 堂頭煎點: 方丈이 주취하는 차례

66) 특별히 청하여 차를 끓이거나 배식을 하는 일을 말한다. 이때 초청받은 사람을 特爲人이라고 한다.

자각 종색, 앞 책, p.117 참조

67) 齊後欲就方丈點茶,特爲堂頭和尚.

자각 종색, 앞 책, <法眷及入室弟子特爲堂頭煎點> p.240

사람의 수가 모두 차면 方丈에 들어 주지를 오도록 하고 자리에 나아가 앉게 한다.⁶⁸⁾

주지가 병에서 일어나면...순당하여 성승, 대중에게 예를 갖추고, 方丈에 들어 다례를 연다.⁶⁹⁾

方丈에서는 저녁에 주지가 행하는 小參이 이루어지며, 각종 행사시의 인사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주지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일도 행해진다. 다례를 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15일 식전에 지사, 두수, 소사, 법권은 먼저 方丈에 들어와 인사한다.⁷⁰⁾

다음날 方丈 안에서 지사, 두수를 위하여 대중을 불러 차를 마신다.⁷¹⁾

주지가 새해(동지) 인사를 하지 않기 원한다면 절기의 하루 전날 공고를 낸다. 공고에는 새해(동지) 인사가 적혀있다. 그날 저녁 고사는 僧堂에서 탕을 제공한다. 주지는 僧堂에서 전점한다. 다음날 지사는 수좌를 위해 庫廬에서 차를 마신다. 그 다음에 수좌, 유나를 시작으로 전점하고 각기 本寮에서 차례로 전점한다.

方丈은 法堂 뒤에 놓이며 사원의 가장 안쪽에 놓인다. 「天童寺圖」⁷²⁾에서는 法堂·佛殿·三門과 남북축을 이루며 배치되며 前方丈이 앞에 놓이고 그 뒤에 內方丈이 놓인다.⁷³⁾

* 法眷及入室弟子特爲堂頭煎點: 법권 등에 의해 개최되는 方丈 주도의 다례

68) 人數俱足,然後入方丈迎請住持人,就主位正坐. 자각 종색, 앞 책, <法眷及入室弟子特爲堂頭煎點>, p.240

69) 住持人病起...巡堂札聖僧·大衆,次入方丈點大座茶. 자각 종색, 앞 책, <將息參堂> p.268

* 將息參堂方丈: 병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70) 十五日粥前,知事·頭首·小師·法眷,先來方丈內人事. 자각 종색, 앞 책, <結夏> p.137

71) 方丈內特爲知事·頭首諸大衆相伴. 자각 종색, 앞 책, <冬年人事> p.143

72) 「靈隱寺圖」에서는 法堂과 축을 이루며 배치되지만 「萬年寺圖」를 보거나 일본의 선찰들에서는 동쪽으로 치우쳐서 놓인다.

73) 天童寺에서는 大光明藏과 穿光堂이라는 편액명이 사용되었

3-5. 僧堂

僧堂은 명상을 하고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 뿐 만 아니라 식사와 취침에도 이용되었다. 또한 1000여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기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靈堂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구름과 물처럼 흘러가는' 禪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었다.⁷⁴⁾

掛塔⁷⁵⁾ 시에는 僧堂 기단 남쪽(왼편)으로 가서 샷갓을 벗어 올려놓고 지팡이를 올려둔다.⁷⁶⁾

자신의 소유물을 僧堂에 있는 보관함에 둔다. (중략) 또 침구와 발우는 僧堂에 둔다.⁷⁷⁾

사찰에 머물고자 할 때 僧堂에 들어가 성승에 인사하고 유나 주관으로 祠部(승적 증명서)를 심사한다. 3일간 僧堂이나 衆寮에 머무르며 인가를 기다린다.⁷⁸⁾

염송 시 주지는 土地堂, 大殿, 僧堂 순서로 분향한다. ⁷⁹⁾

(새 方丈은 도착해서) 僧堂 앞에 나아가서는 포를 풀고, 後架에서 발을 씻는다.⁸⁰⁾

주지가 새해(동지) 인사를 하지 않기 원한다면 절기의 하루 전날 僧堂 앞에 공고를 낸다.⁸¹⁾

고 萬年寺에서는 大舍堂으로 명명되었다. 太白堂, 景照堂, 直旨堂 등의 편액명도 사용되었다.

74) Yifa, 앞 책, pp.69-72 참고

75) 스님이 총림에 거주하면서 대중과 기거를 함께하는 것을 掛塔이라고 한다. 발우 따위를 개인에게 주어진 위치에 건다고 하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자각 종색, 앞 책, p.81 참조)

76) 如便掛塔,於僧堂前門南床,先仰安笠子,次以拄杖安床堂上當字去聲. (자각 종색, 앞 책,<裝包> p.77)

*裝包: 개인의 사물을 꾸리는 것을 말함.

77) 如堂中有函櫃,即收行李安函櫃中鑰之...掛鉢安被於僧堂內 (자각 종색, 앞 책,<裝包> p.77)

78) 掛塔 (자각 종색, 앞 책,<掛塔> pp.83-85)

79) 住持人從土地堂·大殿·僧堂次第燒香. (자각 종색, 앞 책,<念誦> p.127)

80) 就僧堂前解包了,後架洗脚. (자각 종색, 앞 책,<尊宿入院> p.291)

식사가 준비된 후 전좌는 僧堂을 바라보며 분향 예배를 하고 식사를 내보낸다.⁸²⁾

(수좌를 청할 때와 같은 방식의 예를 갖춘다.)
僧堂에서 주지의 주관으로 茶禮를 행한다.⁸³⁾

만약 僧堂 내에서 지사, 수좌가 전점할 때에도 주지인은 方丈에서 행하는 것과 동일한 예를 행한다.⁸⁴⁾

수좌와 대중은 僧堂 앞에 서고 유나에게 편지를 읽도록 한다.⁸⁵⁾

僧堂에서 주로 일어나는 행위 중 중요한 하나는 식사에 관한 부분⁸⁶⁾이다. 『禪院清規』에는 僧堂에 들어가는 방법과 자리에 앉아 식사는 하는 방법 그리고 당에서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僧堂에 들어가는 방법

1. 앞문에서 들어오는 자는 南頰⁸⁷⁾(僧堂의 左側)을 이용한다.
2. 北頰(僧堂의 右側)에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주지를 존경하는 표현이다.⁸⁸⁾

식사 시 주지는 승당의 북쪽으로 진입하고 그 외는 남쪽으로 입실을 한다. 이는 주지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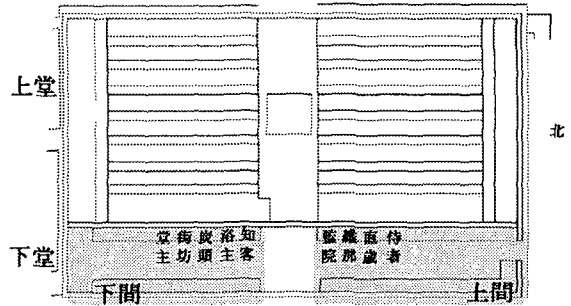


그림 3 赴粥飯시 4지사와 6두수의 위치
(선원청규를 바탕으로 작성)

· 僧堂에 들어가 착석하는 방법

1. 승당에 들어오면 성승 앞에 절을 하고 자리에 앉는다.
2. 監院·維那·直歲·侍者 등은 당 밖의 上間⁸⁹⁾에 자리한다.
3. 知客·浴主·炭頭·街坊·堂主 등은 당 밖의 下間에 자리한다.
4. 주지가 당 안으로 들어가 성승에게 問訊⁹⁰⁾하고 대중과 문신한다. 그리고 난 뒤 자리에 가서 다시 문신한다. 주지가 자리에 앉는다.
5. 대중은 상위에 오르게 된다.
6. 지사·사미는 주지에게 예의를 갖추고 당 밖으로 나와 선다.
7. 대중이 모두 입당을 한다. 그 후 유나가 입당한다. 성승에게 예를 갖추고 분향을 한 뒤 자리에 선다.⁹¹⁾

81) 節前一日,堂頭有免人事,頌帖僧堂前.
(자각 종색, 앞 책, <冬年人事> p.143)

82) 二時食辨,先望僧堂焚香札拜訖,然後發食.
(자각 종색, 앞 책, <典座> p.165)

*典座: 전좌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僧堂에서 음식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한다.

83) 堂頭和尚,就堂煎點
(자각 종색, 앞 책, <請頭首> p.172)

*頭首: 수좌, 서장, 장주, 지객, 육주 등을 말함.

84) 如僧堂內知事,首座,點茶住持人亦同此禮.
(자각 종색, 앞 책, <法眷及入室弟子特爲堂頭煎點> p.241)

85) 首座·大衆, 僧堂前立...請維那讀訖
(자각 종색, 앞 책, <馳書> p.263)

86) 이것을 赴粥飯이라고 한다.

87) 당우 남쪽 기둥에 이웃한 문. 대중은 남협으로 출입하며 주지인은 북협 또는 중앙으로 출입한다.(자각 종색, 앞 책, p.107)

88) 1. 前門入者,茲從南頰入
2. 所以不從北頰,入者尊住持人也
후문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上間에 앉는다. 下間에 앉으면 南頰을 이용한다.
(자각 종색, 앞 책, <赴粥飯> pp.96-101)

89) 승당 내에서 성승을 향해 우측을 상간, 좌측을 하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승당은 동향으로 세워졌으므로 상간은 북측, 하간은 남측이 된다.(자각 종색, 앞 책, p.107)

90) 합장하여 먼저 공경의 자세를 보이고 하반이라고 하여 안부를 묻는 말을 말한다. 후에는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문신이라고 한다.
(자각 종색, 앞 책, p.81)

91) 1. 於聖僧前問訊訖方可就坐.
2. 監院·維那·直歲·侍者等在堂外上間
3. 知客·浴主·炭頭·街坊·堂主等在堂外下間.
4. 住持人入堂,問訊僧罷與大衆問訊,然後就位,復問訊訖住持人就坐,
5. 大衆方可上床
6. 侍者·沙彌參隨住持人,下堂外排立,候大衆座一時間訖,然後

승당에 착석하는 방법은 성승에게 절을 하고 나서 이루어지는데 주지와 각 지사들이 입당하고 나서 대중이 입당한 뒤 유나가 입당하고 나면 식사를 위해 발우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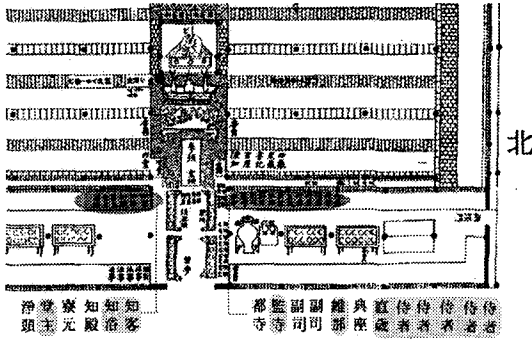


그림 4 경산사 승당도

(大宋五山圖說, p.1307를 바탕으로 재작성)

『禪院清規』를 통해 분석된 각 지위의 위치(그림3)와 「경산사 僧堂圖」⁹²⁾(그림4)를 비교해 보면 유사한점을 발견하게 된다. 『禪院清規』〈赴粥飯〉에서 분석한바 下堂은 上間⁹³⁾과 下間으로 나뉘어 上間에는 監院·維那·直歲·侍者 등이 서고 下間에는 知客·浴主·炭頭·街坊·堂主 등이 서는 것으로 묘사되어있다. 『五山十刹圖』에는 上間에 都寺·監寺·副司·維那·典座·直歲·侍者 가 위치하고 下間에는 知客·知浴·知殿·寮元·堂主·淨頭가 서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두 문헌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監院·維那·直歲·侍者 와 知客·浴主·堂主 등의 위치가 동일하다.

이것을 통해 『禪院清規』에서 언급된 내용은 『五山十刹圖』 즉 당시 宋代 사찰에 투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례식(煎點)시에도 유사하게

侍者,入棹子問訊出.

7.此後維那入堂,聖僧前問訊罷燒香,就碓槌邊立 (자각 종색, 앞 책,〈赴粥飯〉 pp.96-101)

92) 다른 僧堂圖는 靈隱寺와 경산 만수사의 것이다. 靈隱寺의 僧堂도의 경우 간결하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 경산사의 경우는 僧堂의 치수를 적고 있으며 중요 직책의 위치를 기입해 두었고 다른 요소와의 통로나 이용하는 문 등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금강경의 위치까지 기입하여 단순히 좌선 등을 통한 수행뿐만 아니라 경을 읽고 공부하는 장소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93) 僧堂 내에서 聖僧을 향해 右側을 上間, 左側을 下間이라 함. 그리고 僧堂은 동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相姦은 北側, 下間은 南側이 된다. (자각 종색, 앞 책,〈赴粥飯〉 p.107)

이용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그림이 「僧堂念誦及巡堂之圖」(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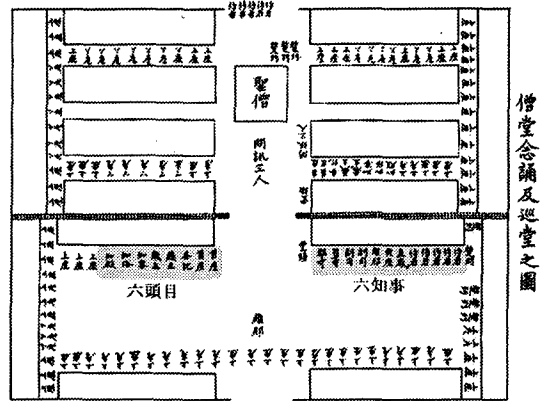


그림 5 僧堂念誦及巡堂之圖

(大宋五山圖說, p.1324를 재작성)

림5)로 순당시의 각자의 자리가 그려져 있다. 上間에는 都寺·監司·副司·維那·典座·直歲·侍者 등의 6지사⁹⁴⁾가 위치하고 下間에는 首座·書記·藏主·知客·知浴·知殿 등의 6두수가 위치한다.

念誦·罷하면 住持人은 먼저 들어와 자리에 선다. 首座 이하는 巡堂하고 선다. 侍者는 대중의 뒤를 따라 巡堂하고, 前門 下間的 板頭 공터에 선다. 知事는 끝 뒤에 따로 한 반을 만들어 차례로 巡堂한다.⁹⁵⁾

『禪院清規』〈念誦〉편을 보면 염송이 끝난 뒤에 수좌 이하가 巡堂하는 것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住持人을 따라 들어온 각 지사가 따로 한반을 만들어 巡堂한다고 하여 그림과 일치하고 있다.

결국 그림4·5와 『禪院清規』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승당에서의 자리는 각 지위별로 정해져 있다. 비슷한 예로 『五山十刹圖』에 실린 다른 <승당도>⁹⁶⁾에도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각 지위별 위치를 그려 넣어 당시 승당 공간의 이용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94) 『禪院 清規』에는 4지사였으나 후에 감원이 분화되어 6지사가 된다.

95) 念誦罷住持人先入依位入.首座以下巡堂立.侍者隨大眾後巡堂.前門下間板頭空虛立.知事後別作一班次第巡堂. 자각 종색, 앞 책,〈念誦〉 pp.128-129

96) 大宋五山圖說, p.1281 참고

이러한 예들은 『禪院清規』와 『五山十刹圖』의 유사성을 보여주며 사찰의 규범이 생활과 건축에 투영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勅修百丈清規』를 해석해 보면 주지와 수좌 등 모든 승려들이 僧堂에서 좌선을 하였으며 모두 출입관에 따라 움직였다고 되어있다.⁹⁷⁾ 즉 참선 시에는 모두 승당에 모였다.

3-6. 庫堂

庫堂은 창고로의 역할 보다 부엌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庫下는 부서를, 庫司는 임무를 말하며 庫堂이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庫裡, 庫院, 廚庫라고 부르기도 했다.⁹⁸⁾ 『五山十刹圖』에서도 「天童寺圖」에는 庫院이라고 적혀 있다.

『禪院清規』에서는 庫堂에 대한 언급은 주로 다른 전각을 가기 위한 곳이나 혹은 사미 등이 상당을 할 때 서 있던 곳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중을 모아서 징계할 일이 있을 때에 사용되었다.

징계할 일이 있을 때에는 庫堂에서 대중이 보는 앞에서 집행한다.⁹⁹⁾

지객은 專使를 인도하여 庫堂에 들어가서 편지를 감원에게 전달한다.¹⁰⁰⁾

3-7. 衆寮

『禪院清規』에서 衆寮의 이용 방법은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다. 주로 공부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僧堂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형식을 갖춘 다례 의식(煎點)을 위한 공간이 되기도 했다. 가끔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현대 사원과 문헌 등에는 도서관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禪院清規』에는 경전을 보관하고 경을 읽는 장소로 看經堂이 따로 언급되었다.¹⁰¹⁾ 이로 미루어 보아 衆寮에서 경

을 읽기도 했지만 전적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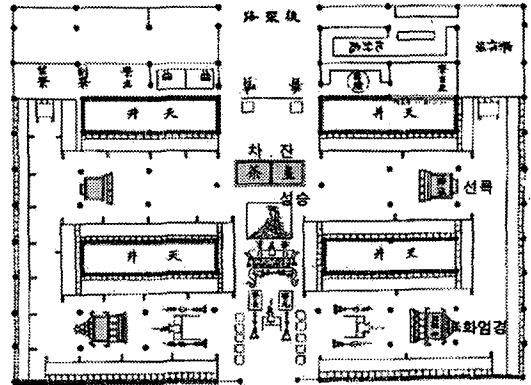


그림 6 衆寮圖
(大宋五山圖說, p.1312를 재작성)

笠子·拄杖은 寮에 가지고 간다. 僧堂 안에 짐(行李)을 거두어 넣을 함궤(函櫃)가 없을 때에는 寮에 이르러 인사를 마치고 오주 수좌가 지시하는 장소에 둔다. 마치고 나면 발우는 걸어두고 이불은 僧堂 안에 둔다. 그리고 차 통과 경전은 寮안에 있는 책상에 둔다.¹⁰²⁾

念誦 후 巡堂을 하고 나면 寮로 돌아와 절을 하고 탕을 마신다. ¹⁰³⁾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煎點 가운데 入寮蠟次煎點¹⁰⁴⁾, 衆中特爲煎點¹⁰⁵⁾, 衆中特爲尊長煎點¹⁰⁶⁾ 등은 衆寮에서 행해진다. 즉, 煎點은 많은 경우 衆寮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衆寮의 그림에도 표현되고 있다. 중앙에 茶와 蠟이 그려져 있어서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禪線과 화엄경이 있어서 경을 읽고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97) 허정수, 앞 책, p.83 참고

98) Yifa, 앞 책, p.268

99) 設有懲戒,當於庫堂對衆行遣 (자각 종색, 앞 책,<監院> p.154)

100) 知客引專使入庫堂,呈書與監院 (자각 종색, 앞 책,<馳書> p.263)

101) Yifa, 앞 책, p.70

102) 笠子·拄杖歸寮,如堂中無函櫃收行李,赴寮人事了聽寮主·首座指授處所相看,畢掛鉢安被於僧堂內.茶筒文字置寮中案上 (자각 종색, 앞 책,<漿袍> p.78)

103) 巡堂罷,大衆歸寮問訊 (자각 종색, 앞 책,<念誦> p.128)

104) 고승이 주취하는 다례

105) 대중이 주관하는 다례

106) 고승의 스승 또는 같은 법계의 승려가 주관하는 다례

4. 결론

宋代 선찰에는 후대와 유사한 여러 전각들이 존재하였고 불교 행사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당시 사찰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수행 공간인 僧堂이나 法堂·方丈의 의례 위주 공간인 佛殿에 비해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점이다. 佛殿은 『禪院清規』에서는 大殿이라고 명명되며 두 차례만 언급된다. 이는 백장선사가 『禪門規式』에서 사찰이 의례 중심에서 수행중심으로 변하도록 강조한 점과 佛殿이라는 전각의 유무보다는 수행공간을 강조한 점과 일맥 한다. 물론 『五山十刹圖』에는 佛殿이 명시되어있고 佛殿을 중심으로 다른 전각들이 배치되어있었으며 크기에 있어서도 여타의 전각들과 동일하다. 하지만 그 이용에 있어서는 거의 언급된 바가 없다. 후대로 갈수록 佛殿의 역할은 강조되지만 宋代에는 佛殿보다는 僧堂이나 法堂이 자기 수행의 공간으로 강조되고 있다.

『禪院清規』와 『五山十刹圖』에는 동일한 전각들이 언급되고 있어 당시 宋代 선찰의 전각들과 『禪院清規』와의 연관성을 뒷받침하고 있다.¹⁰⁷⁾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전각명은 시대에 따라 변모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전각을 다르게 명명하는 경우도 있다.¹⁰⁸⁾

전각의 명칭 등이 일치하고 있는 것 외에 일부 전각의 이용 방식을 살펴보면 『禪院清規』의 건축서로서의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즉 『五山十刹圖』에는 「佛殿圖」, 「僧堂圖」, 「衆寮圖」, 「宣明圖」 등이 실려 있는데 각 지위별 위치 등과 내부구조가 잘 묘사되고 있다. 이것을 『禪院清規』와 함께 비교해보면 청규의 내용이 그림에 투영되고 있음이 고찰된다. 예를 들어 僧堂에서 식사 시의 자리에 대한 『禪院清規』의 부분은 「僧堂圖」에 적힌 4지사와 6두수의 위치와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僧堂念誦及巡堂之圖」의 6지사와 6두목이 위치가 『禪院清規』 <念誦>편에 설명된 염송 후 巡堂하는 위치와 일치하고 있다. 결국 『禪院清規』는 승

려의 생활을 관장하는 의례·규범서이지만 동시에 사찰의 전각의 쓰임을 밝혀주는 건축 자료의 가치도 지닌다.

< 참고 문헌 >

- 자각 종색, 최법혜 역주, 『고려관 禪院清規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2
- 김정수 역, 景德傳燈錄 1·2, 불교통신대학, 1988
- 無著道忠, 칙수백장청규좌후, 중문출판사, 1984
- 칙수백장청규, 속장경Ⅲ:선종저술부,보현각, 1981
- 태고집, 보계사, 1940
- 정성본, 선의 역사와 사상, 불교문화사, 1999
- 한보광, 일본선의 역사, 여래장, 2001
- 송현주, 현대 한국불교 의례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9
- 양상현, 조선시대 사찰배치의 서사구조, 서울대 박사논문, 1999
- 서치상, 순천 송광사의 복원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83
- 신공, 당대 선종사원에 대한 고찰, 한국 선 학회 추계 논문발표회, 2003
- 西和夫 외, 이무희 · 진경돈 공역, 일본건축사, 세진사, 1995
- 바이화문(白化文), 배진달 옮김, 중국사원 문화기행, 예경, 2001
- 伊吹 敦, 禪の歴史, 法藏館, 2001
- 張十慶, 中國江南禪寺寺院建築, 湖北教育出版社, 2002
- 橫山秀哉, 禪院文化の鑑賞, 山喜房佛書林, 1973
- Yifa, The origins of Buddhist Monastic codes in China : an annotated translation and study of the Chanyuan qinggui, Univ. of Hawaii Press, 2002

107) 三門, 法堂, 方丈, 僧堂, 庫司(庫院), 衆寮, 浴室(浴院), 東司(廁), 延壽堂, 鐘樓, 水陸堂, 藏殿(經藏), 土地堂, 童行堂(行者堂), 眞堂(祖堂), 大殿(佛殿)

* ()는 『五山十刹圖』에서의 명칭

108) 물론 두 문헌사이에 차이는 있다. 羅漢堂, 油房은 『禪院清規』에만 등장하는 건물이고 知殿, 老宿, 照堂, 輪藏, 把針處는 『五山十刹圖』에서만 등장하는 건물이다.

The Usage of Buildings in Tiantong Temple in the Song Era

- Through Rules of Purity for the Chan Monastery
and Five Mountains Ten Checks Figures -

Seo, A-Ri

(Master of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Hong, Dae-Hyung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Ceremony is important to Buddhism as a part of the religious practice. Buddhist ceremony is a kind of discipline and it rules the Chan monastery life. This discipline, called 「Qinggui(清規)」 also forms a part of the practice for enlightenment in the Chan monastery(禪宗). Qinggui is derived from 「Baizhang's monastic code(百丈清規)」, which no longer exists. 「Chanyuan qinggui(禪院清規)」 is considered the oldest surviving Chinese monastic discipline. Its success is partly due to the emphasis in the Chan monastery on the succession of monks to abbot hood.

Qinggui has been called the only discipline in Buddhist monastic life in religion. Whether it is also the discipline of the architectural space of the Chan temples is the focus of this thesis. The examination of this assumption may expand the meaning of Qinggui as embodying not only the religious form of discipline but also a fundamental part of the architectural archive.

The majority of the buildings in the Chan monastery in Qinggui are related to 「Five Mountains Ten Checks Figures (五山十刹圖)」. Most of all, it can be clarified that the elements of Qinggui are express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tivities in each building. This proves that Qinggui has become a stipulation not only for the regulation of the monastery life but also the architectural code of the Chan temples.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how the meaning of ceremony and monastery life in 「Chanyuan qinggui」 can be expanded to include the design program of temples. The research proves that there is a basic code in the Chan temples for designing the structure of the monastery space. Similarly, 「Five Mountains Ten Checks Figures」 was a diagram for examination and analysis as well as a tool for creating drawings of the temples in the Song era.

Keywords : Chan temples (禪宗寺刹), Qinggui(清規), Five Mountains Ten Checks Figures (五山十刹圖), Discipline, Ceremony
